

칼럼

김 호 경 뉴시스 사회부장



③ '김광석 부녀 살해범', 위태로운 추론

부인이 남편과의 불화 중에 남편의 친구와 눈이 맞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 남자와 사실상 가정을 이루 살고 있다.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줄거리 같다. 도덕적 지탄은 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실에서 서씨가 남성 편력이 병적으로 심하다거나(어쨌든 그 남자를 사랑해 아이까지 두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이다), 서씨가 그 남자 때문에 김씨를 죽였다거나, 그 남자가 김씨의 살해를 공모했다는 논리를 끌어낼 수는 없다.

실제 범행과 관련된 증거 없이는 무리한 비약일 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기사는 김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서씨가 일관되게 진술해온 부분은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김씨의 여자 문제 여부에 관해서도 공정하게 검증해줘야 역시 형평성에 맞는데, 단지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결론만 한마디 꺼내놓을 뿐 진상이 소문과 여짜서 다르다는 건지, 서씨 행변이 왜 거짓인지에 대해 일절 부연 설명이 없다.

김씨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결혼생활이 한층 파탄 나고

괴로웠다는 게 일정 부분 맞는다면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느 일방에 쏟아지는 윤리적 비난도 재고의 여지가 생긴다.

팔 서연씨의 죽음은 영화에는 소개되지 않는다. 이 기사가 영화 개봉 뒤 발굴한 특종이다. 이 다큐의 허술했던 일개나 완성도는 서연씨의 사망 사실이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가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서씨를 딸의 살인범으로 지명한 행위는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서연씨 시신에서 타살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안 나온 것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연사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확대나 고의적 방치(유기치사)에 관한 추측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아직 판단할 만한 객관적 정보가 없는 상태다.

다만 딸의 죽음을 왜 숨겼느냐가 수상한데, 시체를 비롯해 세상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시달릴 처지가 되는 게 극도로 싫었던 피해의식이나 남편 친구와 살고 있는 현실, 저작권 관점이 복잡해질 우려(딸의 사망 여부가 저작권 판결에 미쳤을 영향은 확실치 않다)에 따른 탈옥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서씨가 친구라든가 평소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본인 해명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경찰 수사 상황 등을 보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가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들만으로는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데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게 필자의 결론이다.

물론 이 기사의 노고와 집념은 충분히 감명 깊게 다가온다. 서씨의 행적에 이해하기 힘든 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널리즘의 여러 기본 원칙이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증거재판주의의 법리로나, 거의 단정적으로 '부녀 살해범 서해순'을 대중에 공표하는 행위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저런 정황은 있다는 치더라도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근거나 인과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적정선을 지키며 의혹 제기를 해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단정적 추론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확

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최근 240번 버스 사건의 경우처럼 목격자에게 다른 저의나 악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오판에 기인한 폭로가 균중심리에 불을 질러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서해순씨 사건의 심각성은 240번 버스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적 관심사가 될 가치가 있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와 극단적 인신공격이 기저는 기자회견에서 서씨를 '악마'라고까지 지칭했다)을 수반한 무리한 폭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기사가 서씨의 혐의를 가정 사실화하거나 확정적 진실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대중 앞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다 진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사 진척에 따라 어떤 예기치 못했던 아무도 모르던 사실 관계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혹 끝이 맞아떨어지더라도 과정의 문제점은 남는다. 나중에 수사나 판결 등을 통해 의혹이 허위로 확인되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회복할 길 없는 치명상을 입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대인관계가 불가능해진다.

그 파괴된 인격권과 일상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서씨 관련 기사의 술한 댓글과 SNS 등 여론의 기류는 볼 때 서씨는 이미 화형대 위에 올라 사회적 타살을 당하기 직전인 상태. 언론이나 시민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이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형대에 불을 지르는 일은 죄과가 밝혀진 뒤 해도 늦지 않다.

社 說

고독사 방치해선 안 된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고독사를 지칭하는 정부의 개념적 정의도 없고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식 연간통계자료도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전수조사와 고독사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층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고독사는 지난해 서울복지재단이 추진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서울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이나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숨진 채 방치됐다가 3일 이후에 발견됐을 경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웃이나 집주인이 119 또는 경찰에는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통계에서 고독사 사례가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병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이다. 하지만 경찰청 역시 고독사를 별도로 분류하거나 통계화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

고독사 예방지원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먼저 시행한 뒤에 1인가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상 문제점 파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고독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독사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서로 관찰하면서 주민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勸 권
賞 상
黜 출
陟 척

勸賞黜陟

▷ 뜻: 농민의 의기를 앙양키 위해 열심히 자는 상 주고, 게을리한 자는 출척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최근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크게 차이 나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일반 주택에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귀중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 내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고 연기가 생성되어 주위가 캄캄해지면 사람이 공포감에 휩싸여 당황하고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

로 인해 행동의 제한이 오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약80%이상이 화염이 사람의 몸에 채 닿기도 전에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망이고, 약20% 정도만이 소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함은 필수이다. 만약에 화재로 인해 실내에 고립 되었다면,

첫째 불길이나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담요나 옷가지 등을 물에 적서 틈을 막고 창문 등을 통해 물건을 던져 간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둘째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셋째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거나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넷째 엘리베이터는 전원 공급이 차단되고 굴삭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고층건물이나 복합주거상가 화재시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질서 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위민환 /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